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한국조폐공사 '돈 만드는 사람들'

화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지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한국조폐공사 제공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돈'. 그래서 돈을 디자인하고, 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화폐 제조 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는 학생들이 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돈 만드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돈 만드는 사람들'은 △위폐감별사 △화폐디자이너 △주화전문가 △보안인쇄전문가 등 화폐와 관련된 8개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진로직업특강 프로그램. 한국조폐공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직업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실습으로 이뤄진다. '위폐감별사' 특강을 예로 들면 먼저 화폐의 위·변조 요소에 대해 배우고, 직접 휴대용 위·변조 식별기를 이용해 화폐의 위·변조 식별요소를 찾아보는 식. '나도 화폐디자이너'에서는 화폐디자이너의 역할을 살펴본 뒤, 나만의 화폐를 디자인해 에코백에 입혀 보는 활동을 한다.

각 수업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나도 위폐감

별사'는 한국조폐공사 위조방지센터 기술연구원이, '나도 화폐디자이너'는 디자인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나도 보안기술전문가'는 미래기술연구센터 연구원이 직업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학생들은 화폐와 관련된 특수한 직업들을 접하며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돈 만드는 사람들'은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대전 유성구)과 화폐 본부(경북 경산시)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2월)에 운영될 예정이며, 회당 4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3시간 내외이고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42-870-1147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화폐디자이너: 지폐나 동전의 미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접목하여 화폐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화폐의 개선을 위해 다른 나라 화폐를 연구하는 일도 하며, 화폐 이외에 투표·여권·신분증 등도 디자인한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돈을 디자인하는 만큼 해당 국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화폐에 쓰이는 숫자와 그림을 선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꼼꼼함과 인내력을 겸비해야 한다.

● 발명진흥원 소속 발명교육센터 '1일 발명교실'

“오늘은 내가 발명왕”



콜로지칼이라는 교구를 활용해 구슬이 내려가는 레일을 직접 설계해보는 학생들. 포항발명교육센터 제공

발명은 어떻게 할까? 나만의 발명품은 어떻게 '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발명진흥원에 소속된 각 지방 발명교육센터는 발명 관련 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1일 발명교실'을 운영한다. 이중 포항발명교육센터는 △VR기기·3D프린팅·드론 체험 △지식재산권 교육 △발명캠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발명교육센터의 '1일 발명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발명의 필요성부터 배운다. 발명을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됨을 배우는 것.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출원(발명자가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국가에 요구하는 것)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모바일 앱 등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포항발명교육센터에서는 지난해 포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변리사를 초청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을 통해 지식재산으로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게 된다.

과학적 소양을 쌓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실습수업도 이뤄진다. 단기간에 직접 발명품을 만들어보기가 어려우므로 발명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길러보는 것. 예를 들어 '콜로지칼'이라는 교구를 활용해 구슬이 내려가는 레일을 직접 설계해본다. 이밖에 '위두' 교구를 활용한 자동화 기계장치 만들기 교육, '코블' 교구를 활용한 코블자동차 제작 교육 등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발명에 필요한 기기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하며 협동심도 기른다.

포항발명교육센터의 '1일 발명교실'은 포항시 내 중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다(포항 외 △안동 △

광주 △고양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올해 화요일과 목요일에 총 10회 차로 운영될 예정이며 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3시간이고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포항교육센터에서 각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확인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4-288-6728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발명가: 지금까지 없는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이 생각해 낸 발명품의 특징을 적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특허신청을 할 수 있다. 자신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기업에 팔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특허상품을 팔기도 한다.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불편함을 포착해내는 관찰력,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 등이 요구된다.